

# 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## 이슈브리프

코로나19에 따른 기업대출시장 동향 및 전망  
KDB벤처지수를 통해 살펴본 국내 벤처생태계

## 국제금융시장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# 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## 이슈브리프

코로나19에 따른 기업대출시장 동향 및 전망 .....	1
KDB벤처지수를 통해 살펴본 국내 벤처생태계 .....	4

국제금융시장 .....	7
--------------	---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 .....	11
--------------------	----

#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대출시장 동향 및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이 시 은 (selee@kdb.co.kr)

- ◆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의 신용위험 상승으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은 크게 위축될 전망
  - 한편, 기업은 생존을 위한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경색에 따른 대출시장 진입 등으로 대출수요가 대폭 확대되어 자금난이 가중될 전망
- ◆ 신용경색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 필요

## □ '20.1~2월중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(증감액 기준)는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기 전으로 전년동기대비 확대되었으나, 3월중 기업의 체감 자금사정(BSI)은 전월대비 크게 악화

-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인 '20.1~2월중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13.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.7조원 확대
  - 이중 중소기업대출이 10.7조원으로 전체 증감액의 78.3%를 차지하며, 중소기업대출 잔액도 전년동기대비 7.3%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
  - '20.1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완화기조

### 은행의 기업대출 증감액 및 잔액 추이

(단위 : 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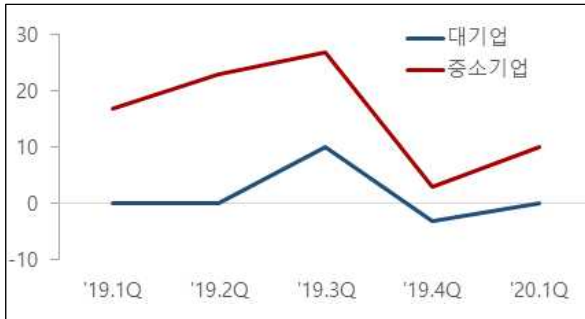
	'18.1~2월	'19.1~2월	'20.1~2월	증감액(률)
기업대출 증감액	10.5	12.0	13.6	+1.7
대기업	2.1	3.2	3.0	△0.2
중소기업	8.4	8.8	10.7	+1.9
기업대출 잔액	792	836	883	+5.6%
대기업	152	158	155	△1.7%
중소기업	640	678	727	+7.3%

주 : 1) 기업대출 잔액은 2월말 기준, 기업대출 잔액 증감률은 전년동월말대비 기준  
2) 합계 불일치는 반올림에 따른 것임

자료 : 한국은행

- 한편,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된 이후인 3월중 기업의 자금사정BSI\*는 전월 대비 10p 하락한 68로 금융위기 수준('08.12월 65)으로 크게 하락
  - \* 자금사정BSI는 기업 자금사정에 대한 경영자의 긍정·부정 응답을 0~200 사이 값으로 지수화(기준=100)한 것으로, 「'호전' 응답업체 구성비(%) - '악화' 응답업체 구성비(%) + 100」으로 산출
  -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자금사정(66)이 더 크게 악화되었으며, 제조업(71)에서는 중소기업(58)의 악화가 두드러짐

국내은행의 대출태도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자금사정BSI 추이

	'20.1월	'20.2월	'20.3월	전월대비
전 산업	83	78	68	△10
제조업	83	78	71	△7
대기업	91	88	83	△5
중소기업	74	68	58	△10
비제조업	84	78	66	△12

자료 : 한국은행

□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 확대로 취약차주 및 경기 영향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난 가중

- 금융위기 당시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(증감액 기준)는 '07년 79.3조원에서 '08년 78.3조원, '09년 14.5조원, '10년 10.9조원으로 급격히 감소
  - 시중은행은 경기순응성이 높아 경기하강 국면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크게 축소\*하여 기업의 자금수요 충족이 미흡
  - \*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자금공급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던 '09.1~9월중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증감액은 전년동기대비 88.4% 급감(44.9조원→5.2조원)한데 비해 산업은행은 3.3% 감소(7.0조원→6.8조원)에 불과
- 취약 중소기업 및 경기 영향이 큰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먼저 축소
  - 금융위기 직후인 '08년중 총 기업대출 규모는 '07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,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28% 급감(66.8조원 → 48.0조원)
  - 산업별 대출잔액 증감률을 살펴보면,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도·소매업, 음식숙박업, 건설업, 부동산업이 제조업보다 먼저 둔화되기 시작

은행의 기업대출 증감액 및 잔액 추이

(단위 : 조원)

	'07년	'08년	'09년	'10년
기업대출 증감액	79.3	78.3	14.5	10.9
대기업	12.5	30.3	△5.2	11.8
중소기업	66.8	48.0	19.7	△0.9
기업대출 잔액	413	492	506	517
대기업	50	81	76	87
중소기업	363	411	431	430

주 : 잔액은 연말기준  
자료 : 한국은행

은행의 산업별 대출잔액 증감률

(단위 : %)

	'07년	'08년	'09년	'10년
제조업	17.5	25.0	5.0	5.4
건설업	36.2	19.4	△17.9	△12.3
부동산업	41.8	18.2	5.9	△4.8
도·소매업	20.4	15.1	4.3	3.7
음식숙박업	17.5	7.4	3.9	2.7

주 : 전년말대비 기준  
자료 : 한국은행

## □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의 대출수요는 대폭 확대되나,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공급이 위축되면서 기업의 자금난은 가중될 전망

-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신용위험은 증가하고 대출수요는 확대
  - 민간소비 위축,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기업의 매출 감소와 실적 악화로 기업 생존을 위한 운영자금 수요가 급증할 전망
  -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도 회사채시장 경색으로 대출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\*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
    - \* 회사채시장 경색에 따른 대기업의 한도대출 사용 증가 등으로 5개 은행(KB·신한·우리·하나·NH)의 대기업대출잔액(3.20일 기준)은 78.7조원으로 2월말 대비 1.8조원 증가
- 반면,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를 보이는 민간금융기관은 신용공급을 축소하고 우량 차주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
  - 이에 따라 민간금융기관의 대출 만기연장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, 개인사업자\*,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금난이 가중될 전망
    - \* 개인사업자대출 잔액(조원, 중소기업대출내 비중) : '17년말 288.8(45.7%) → '18년말 313.8(46.9%) → '19년말 338.5(47.2%) → '20.2월말 342.2(47.0%)

## □ 정책금융기관의 경기대응적 자금공급과 함께 민간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도 중요

- 적절한 신용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유동성 부족이 확대될 경우 정상 기업들의 연쇄 도산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
- 정책금융기관의 경기대응적 자금공급과 함께 민간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등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

# KDB벤처지수를 통해 살펴본 국내 벤처생태계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 
조윤정 (yunjeong.cho@kdb.co.kr)

- ◆ 국내 벤처생태계의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된 KDB벤처지수는 '13년부터 상승 추세가 뚜렷, 특히 '17년 하반기 이후 혁신성장 정책 등에 힘입어 급격하게 상승 중  
- '19.12월 290.0('08.1월=100)으로 시장환경이 '08.1월보다 2.9배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
- ◆ KDB벤처지수의 지속적 상승세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내 벤처생태계는 빠른 속도로 양적성장을 해왔으며, 국제경쟁력 확보 등 질적성숙을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

## □ (KDB벤처지수 개요) 국내 벤처생태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가 개발한 지수로 '18.5월부터 발표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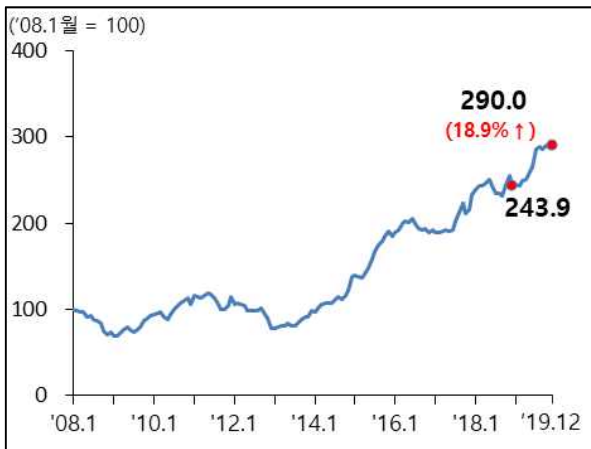
- 미국 벤처생태계의 전반적 활력도를 평가하는 Bloomberg US Startup Barometer를 벤치마킹했으며, 국내 환경과 가용 데이터를 감안해 세부항목과 발표주기 등 조정  
- US Startup Barometer는 주 단위 발표, KDB벤처지수는 월 단위 발표  
- 신규 투자자의 유입을 측정하기 위해 US Startup Barometer에는 없는 신규 투자조합의 설립 건수와 조성금액 통계를 추가
- KDB벤처지수는 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충분한 투자재원, 활발한 신규투자, 안정적 회수여건을 지수화 및 합산해 산출\*하며, 각 세부항목도 보조지수로 제시  
\* '08.1월을 기준점(100)으로 하여 지수를 산출하며, 지수 1의 변화는 '08.1월 대비 1% 변화를 의미  
- 투자재원지수 : 신규 투자조합 설립 건수 및 조성금액 합산  
- 투자실적지수 : 신규 투자 건수 및 금액, 초기기업(창업 3년내) 투자금액 합산  
- 회수여건지수\* :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수 및 상장금액 합산  
\* 국내는 미국과 달리 M&A, 장외매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회수실적 통계가 없어 코스닥 신규 상장 통계를 대안지표로 적용

## □ (KDB벤처지수의 최근 추이) '13년부터 상승세 뚜렷,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'17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 중

- KDB벤처지수는 '19.12월 기준 290.0으로 전년동기대비 18.9% 상승  
- '08년 금융위기 여파로 '13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'13년부터 상승세가 뚜렷  
- 이후 '16년 하반기부터 '17년 상반기까지 정체되었다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등 영향으로 '17년 하반기부터 다시 급격하게 상승 중

- 현재 국내 벤처생태계를 둘러싼 시장환경이 기준년도인 '08년 대비 약 2.9배 더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
- 세부지수 중 특히 투자재원지수가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여왔으며, 회수여건지수는 상대적으로 주춤하다가 '18.10월 이후 회복세
  - 투자재원지수는 '19.7월 343.7까지 상승했다가, 최근 신규투자조합 결성금액의 역기저효과 등에 따라 다소 하락해 '19.12월 298.6 기록(전년동기대비 1.6% 상승)
  - 투자실적지수는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, 특히 '19년 하반기 들어 초기기업(창업 3년내) 투자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영향이 두드러짐
  - 회수여건지수는 '17.10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'18.10월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, 이후 꾸준히 회복되어 '19.12월 187.1을 기록

KDB벤처지수 추이



자료 : 산업은행 KDB벤처지수('20.3월)

KDB벤처지수의 세부지수 추이



자료 : 산업은행 KDB벤처지수('20.3월)

□ (전망 및 시사점) KDB벤처지수는 세부지수들의 선순환적 증가에 따라 상승세 지속 예상, 양적성장을 이룬 국내 벤처생태계의 질적성숙을 위한 국가역량 집중 필요

- (KDB벤처지수 전망) 현재 투자자금의 시장 공급이 원활한 상황으로 신규 벤처투자가 향후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, KDB벤처지수의 상승세 지속 예상
  - 대체로 투자재원지수는 투자실적지수에 선행, 회수여건지수는 후행하는 경향
  - '19.12월 투자재원지수는 최근 다소 하락했으나 '08년보다 약 3배 높아 투자자금 공급이 원활한 상황으로, 향후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투자자와 회수를 순차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기대

- **(벤처생태계의 양적성장)** KDB벤처지수의 지속적 상승세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, 국내 벤처 창업과 투자는 빠른 속도로 양적성장을 이룩
  - 국내 벤처기업 수(천개) : ('00년) 9 → ('05년) 10 → ('10년) 25 → ('15년) 31 → ('19년) 37
  - 국내 유니콘 수\*(개) : ('14년) 2 → ('17년) 3 → ('20.3월) 10
  - 국내 신규 벤처투자 규모(조원) : ('14년) 1.6 → ('16년) 2.2 → ('18년) 3.4 → ('19년) 4.3

※ VentureIn('20.3월), 한국벤처캐피탈협회('20.1월), CBInsights('20.3월) 등 참고  
 \* 국내 유니콘 수는 '19.12월 11개에서 독일 기업에 매각된 우아한형제들이 제외되어 10개로 감소
  
- **(벤처생태계의 질적성숙 필요성)** 국내 벤처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업·투자 저변 확대, 스케일업 촉진 및 회수 유도 등 필요
  - 벤처 창업분야 편중(소프트웨어 등), 정책자금 중심 투자, 창업초기 단계에 집중된 정책지원, 회수·재투자 기반 미약 등은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
    - 벤처캐피탈의 기업당 평균투자액은 '19년 27억원으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상대적으로 불충분하다는 평가
    - 투자 회수수단이 해외 벤처 선도국과 달리 기업공개나 M&A보다는 장외 매각에 편중된 가운데, 평균 기업공개 소요시간도 길어지는 추세

\* 국별 벤처투자 회수의 M&A 비중(각국 벤처캐피탈 협회) : ('18년) 미국 43%, ('19년) 한국 0.5%  
 \*\* 국별 평균 기업공개 소요기간(각국 벤처캐피탈협회) : 한국 ('16년) 13.1년 → ('17년) 14.3년  
 미국 ('16년) 7.6년 → ('17년) 6.8년
  
- 해외와 비교 시에도, 실리콘밸리, 런던, 베이징 등이 글로벌 벤처생태계 순위\* 상위권을 수성 중인 가운데 한국은 30위권 밖에 위치해 인도·홍콩 등보다 열위
  - \* Startup Genome(미국의 스타트업 분석기관, '19.5월), "Startup Ecosystem Report 2019"
  - 동 순위에 '17년에는 20개의 지역이 포함되고, '19년에 10개의 지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나 한국은 미포함(자카르타 등과 함께 30위권 진입후보로 선정)
  - 서울의 벤처생태계 가치는 글로벌 중간값(Median) 수준인 50억달러에 그쳐 실리콘밸리(3,120억달러), 베이징(1,420억달러), 런던(470억달러) 등과 큰 격차
  - 서울은 벤처생태계 순위가 비슷한 타 도시들 대비 특히 초기투자(Seed, SeriesA) 증가율, 벤처기업의 성장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

글로벌 30대 벤처생태계

순위	지역	순위	지역	순위	지역	순위	지역	순위	지역	순위	지역
1	실리콘밸리	6	텔아비브	11	스톡홀름	16	오스틴	21	덴버	26 ~ 30	애틀랜타
2	뉴욕		LA	12	시애틀	17	시카고	22	로잔(스위스)		바르셀로나
3	런던	8	상하이	13	토론토	18	벵갈루루(인도)	23	시드니		더블린
	베이징	9	파리	14	싱가포르	19	워싱턴DC	24	밴쿠버		마이애미
5	보스턴	10	베를린	15	암스테르담	20	샌디에고	25	홍콩		뮌헨

자료 : Startup Genome('19.5월), "Startup Ecosystem Report 2019"

# 국제금융시장 3월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 김혜진 (ghjkim@kdb.co.kr)  
 정대형 (wellbaby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달러화는 코로나19 팬데믹 공포에 따른 큰 폭의 강세 이후 대규모 美 정책 대응의 영향으로 진정되었으며, 원/달러 환율도 달러화 수급 불안에 의한 폭등과 정책대응에 따른 급락이 나타나는 변동성 시현
- ◆ **(금리, 주가)**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인한 선진경제권 장기금리 저점 기록 및 주가 대폭락이 주요국 경제정책 대응이 발표된 월 중반 이후 다소 진정되는 경향

□ **(환율) 달러화는 달러화 수요 급증으로 가파른 강세를 보였으나, 유례없는 대규모 美 정책대응에 힘입어 월초 수준으로 진정되었으며, 원/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매도, 달러화 수급불안으로 급등 후 통화스왑계약(19일) 체결로 하락 반전**

○ 달러 인덱스\*는 팬데믹 선언(11일)에 따른 전세계적인 달러화 수요 급증으로 19일 '17.1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하였으나, 이후 美 연준·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대응으로 가파르게 하락\*\*

\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
\*\* 달러 인덱스 추이 : (2.28일) 98.062 → (3.19일) 102.686 → (3.24일) 101.778 → (3.31일) 98.952

- 11일 이후 경기침체 공포 및 이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로 달러화가 유일한 안전자산으로 부상하였으며, 이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상승

-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美 연준과 정부가 금융위기 수준 이상의 광범위한 정책을 발표하자 24일 이후 공포심리가 진정되며 월초 수준으로 빠르게 하락

\* 美 연준은 3월 긴급 금리인하(150bp), 무제한 양적완화, 회사채 시장 유동성 공급 등을 발표하였으며, 美 정부의 2.2조달러(GDP의 약 10% 규모) 경기부양 패키지가 27일 의회 통과

○ 엔화는 달러화 강세, 안전통화 역할 희석의 영향으로 25일까지 큰 폭의 약세를 보였으며, 이후 공포심리 진정 및 달러화 약세 전환의 영향으로 월초 수준 회복

\* 엔/달러 환율 추이 : (2.28일) 107.89 → (3.20일) 110.76 → (3.24일) 111.235 → (3.31일) 107.55

○ 유로화는 달러화 가치 흐름에 연동되어 20일까지 큰 폭의 약세 기록 후 월말에 월초 수준으로 반등

\* 달러/유로 환율 추이 : (2.28일) 1.1038 → (3.19일) 1.0693 → (3.24일) 1.0788 → (3.31일) 1.1035

주요 선진국 통화 환율 추이

	'18년말	'19년말	'20.2월말	'20.3월말	전월대비
달러 인덱스	96.140	96.479	98.062	98.952	+0.91%
엔/달러	109.61	108.66	107.89	107.55	△0.32%
달러/유로	1.1456	1.1219	1.1038	1.1035	△0.03%

주 :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- 원/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매도, 외화자금 경색 우려 등의 영향으로 19일 1,285.7원으로 폭등하였으나, 한-미 통화스왑계약 체결(19일) 이후 큰 폭 하락\*
  - \* 원/달러 환율 추이 : (2.28일) 1,213.7 → (3.19일) 1,285.7 → (3.24일) 1,249.6 → (3.31일) 1,217.4
  - 대규모 외국인 주식매도\*, 마진콜에 대응한 증권사의 외화자금 수요 등으로 외화자금시장의 달러화 수급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환율 상승이 가속화
  - \* '20.1~3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도액 15.5조원 중 12.5조원이 3월에 발생
  - 한-미 통화스왑계약 이후 달러화 수급 불안 우려가 다소 진정되며 빠르게 하락

원화 환율 추이

	'18년말	'19년말	'20.2월말	'20.3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	1,115.7	1,156.4	1,213.7	1,217.4	+0.30%
원/엔	1,017.9	1,064.2	1,124.7	1,131.6	+0.61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금리) 극단적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3월 후반부 주요국 통화·재정정책 대응 발표 및 유동성 리스크 우려로 다소 완화

- 미국, 유럽 등 선진경제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미국과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\*하기도 했으나, 美 무제한 양적완화(23일), 2.2조 규모 경기부양 법안\*\* 통과(27일) 등의 주요국 정책대응으로 부분 반등세
  - \* 9일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0.54%, 독 국채 10년물 금리는 △0.86%로 각각 사상 최저치 기록
  - \*\* 미국 GDP('19년) 대비 약 10.3% 규모로 가계, 피해산업, 주정부 등 거의 모든 경제주체를 지원
  - 3월 후반부 장기 금리 반등에는 정책대응 기대 뿐 아니라, 장기물 유동화 부담과 헤지펀드 투기에 대한 시장 우려도 작용

□ (주가) 2월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던 다우지수가 영업중단, 실업자 급증 등 실물경제 충격으로 최대 37%까지 폭락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에 주요국 증시가 패닉상황

- 美 연준의 두 차례에 걸친 금리 대폭 인하(Big cut)\*가 오히려 투자자 공포 심리 및 위험자산 처분(risk-off)을 자극하는 시그널로 작용하여 美 증시 대폭락\*\*
  - \* 3.3일 △50bp (1.50~1.75% → 1.00~1.25%), 3.15일 △100bp (1.00~1.25% → 0.00~0.25%)
  - \*\* 다우존스 지수 : (2.12일) 29,551.42pt → (3.23일) 18,591.93pt (△37.1%)
  -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 발표(23일)를 기점으로 美증시가 반등해 일부 만회

주요국 국채 금리 및 주가 추이

		'18년말	'19년말	'20.2월말	'20.3월말	전월대비
금리 (%)	미국채 10y	2.6842	1.9175	1.1486	0.6695	△47.91bp
	독일채 10y	0.2420	-0.1850	-0.6070	-0.4710	+13.60bp
	일본채 10y	0.0030	-0.0110	-0.1530	-0.0220	+13.10bp
주가 (pt)	다우존스	23,327.46	28,538.44	25,409.36	21,917.16	△13.74%
	유로 Stoxx 50	3,001.42	3,745.15	3,329.49	2,786.90	△16.30%
	Nikkei	20,014.77	23,656.62	21,142.96	18,917.01	△10.53%

자료 : Bloomberg

# 국제금융시장 4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 김혜진 (ghjkim@kdb.co.kr)  
 정대형 (wellbaby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달러화는 당분간 유동성 확보 수요에 따른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며, 원/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, 외국인 주식 매도 등 수급상 상승압력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
- ◆ **(금리, 주가)** 장기금리는 하락 요인(안전자산 선호)과 상승요인(유동성 수요 등)의 혼조세를 보이고, 주가는 비관적 경제전망으로 인해 대체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
□ **(환율)** 달러화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달러화 보유 성향으로 강세가 유지될 전망이며, 원/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지속 가운데 외국인 주식매도 및 배당금 역송금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에서 등락할 전망

○ **달러화 : 강세 지속**

- 글로벌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통일된 가운데 당분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
- 미국 내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 감소, 소비 위축 등 美 경제지표의 본격적인 악화\*가 예상되나,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의한 달러화 수요 지속 등으로 달러화에 대한 강세요인 우세
- \* 3월 실업률은 전월비 0.9%p 상승한 4.4%,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셋째주 328만명, 넷째주 665만명
- 무제한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조달 여건\*은 악화된 상태 지속
- \* TED Spread 추이 : (2월말) 16.8bp → (3월말) 132.1bp → (4.3일) 129.1bp  
 LIBOR-OIS Spread 추이 : (2월말) 22.9bp → (3월말) 138.0bp → (4.2일) 129.8bp

○ **엔화 : 보합세**

- 소비세 인상 여파 지속, 일본 내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, 도쿄 올림픽 연기 등 약세요인\*과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따른 강세요인이 충돌
- \* 4.1일 발표된 '20.1분기 단칸지수\*가 △8을 기록, 7년만에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(0을 기준으로 플러스 [+])이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기업이, 마이너스[-]이면 비관적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

○ **유로화 : 소폭 약세**

- 유럽 각국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강도 높은 이동 제한에 따른 경제활동의 전방위적 마비\*,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정책강도 등을 감안할 때 약세압력 우세
- \* 3월 유로존 서비스업 PMI는 사상최저치(28.4pt)로 급락, 이는 금융위기 당시 최저치(39.2pt)보다 낮은 수준

○ 원/달러 환율 : 높은 수준 유지

- 외국인 주식매도 지속, 수출 감소,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등 원화 약세압력이 우세한 가운데 한-미 통화스왑계약 등이 변동성을 일정부분 완화 가능
-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수입 감소보다 수출 감소의 영향이 더 클 전망이며 계절적 요인인 외국인 역송금\*도 환율 상승 우려 요인

\* '19.4월 원/달러 환율은 배당금 역송금 등으로 '19.3월말 대비 33.1원 상승(1,135.1원 → 1,168.2원)

- 통화스왑계약이 환율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,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
□ (금리, 주가) 장기채권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증시에서는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 주가 약세가 예상

○ 금리 : 장기채권 시장의 혼조세

- 장기금리 하락요인(안전자산 선호)과 상승요인(유동성 선호\*)의 혼재로 인한 등락 반복 등으로 혼조세 예상

\* 위기상황 지속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위축 → 장기채 가격 하락(금리 상승)

○ 주가 : 경기전망 비관으로 인해 주식시장 약세 전망

- 미국, 유럽 등 주요 경제권에서 2분기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, 4월 세계 증시는 대체로 약세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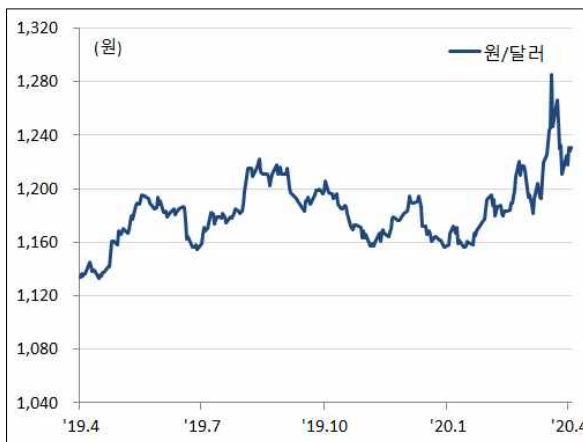
(담당자 : 환율 - 김혜진, 금리·주가 - 정대형)

# 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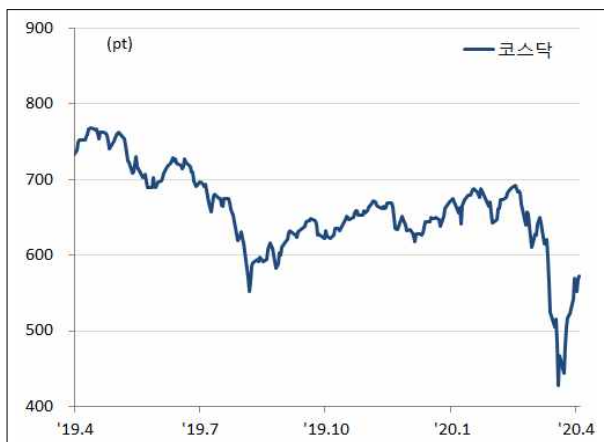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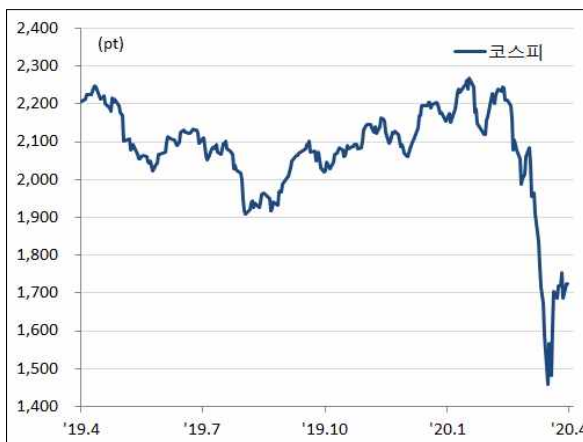
**금리** 국고채3년 1.066% (0.6bp ↑), 신용스프레드 62bp (1.5bp ↑)



**환율** 원/달러 1,230.9원 (20.3원 ↑), 엔/달러 107.9엔 (0.08엔 ↓)



**주가** 코스피 1,725.44pt (0.45% ↑), 코스닥지수 573.01pt (9.6% ↑)



\* ( 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, 신용스프레드와 엔/달러는 목요일 종가 기준

## 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873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**인터넷**            [rd.kdb.co.kr](http://rd.kdb.co.kr), [kdb.co.kr](http://kdb.co.kr)  
**문의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787.7826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